

## 제15장 해방 후 사역- I

### 1. 교회설립

1945년 8월 14일(화) 일본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이어 히로히토[裕仁, 1901.4.29.~1989.1.7.] 일본 국왕의 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by Japan)가 연합군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15일(수) 일본 표준시(標準時) 기준으로 정오(正午)에 일본의 유일한 방송국이었던 NHK(Nippon Hoso Kyokai)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왕의 항복 선언이 방송되므로 조선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감격의 해방(解放)을 맞았다. 그렇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이었는데, 조선의 국토가 분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왜냐하면 북한(北韓)지역은 공산국가인 소련(蘇聯,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이, 남한(南韓)지역은 자유국가인 미국(美國,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군정(軍政, military government)을 실시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동석기 선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쌓아 놓은 ‘조선 그리스도의 교회의 중심지’요 ‘조선 환원 운동의 발상지’인 북청지방이 북한에 있었기에 분명히 공산정권의 수중에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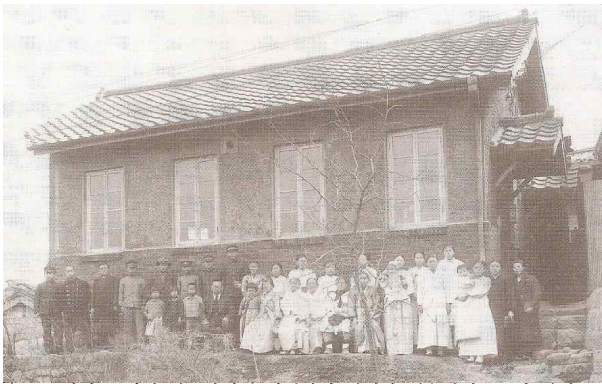
어갈 것을 예견(豫見)한다. 아울러 동석기는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선교 활동 등이 여러 가지로 제약(制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쓰 마모루 미국 전함 USS 미주리에서 항복문서에 서명(1945.9.2 위키백과사전)

그뿐만 아니라 선교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시달림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豫測)하였다. 그래서 동석기 선교사는 북청 지방의 교회들을 제자인 양석문 전도자와 수동교회 이흥식 집사에게 맡기고 월남하여 ‘수도 서울에서 선교를 재개할 결심’을 하였다. 이어 소련군대(蘇聯軍大)가 북한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기 전인 8월 15일(수)부터 25일(토) 사이에 남한으로 출발하여 9월 초 서울에 도착하였다.

동석기 선교사는 서울에 도착한 후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39년 9월에 남한 선교를 염두에 두고 3,000원의 값을 치르고 사두었던 종로구 내수동 106번지에 있는 한옥을 찾아갔다. 동석기가 이 한옥을 준비하던 때는 Church of Christ의 인적자원(목회자)이 너무나 부족하던 때여서 맡길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동석기는 Christian Church 성낙소 목사에게 무상임대를 하고 북청으로 떠났었다. 그러자 성낙소는 1939년 3월에 이 한옥 옆집에서 설립한 ‘내수정 基督教會(Christian Church)’ 예배당을 이 한옥으로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1943년 7월 7일(수) 성낙소는 내수정(동) 길 건너편 필운정(동) 289번지의 한옥을 사서 옮겨갔으며, 1946년 교회 이름을 필운동교회(Christian Church)로 개명했었다.



성낙소 목사가 동석기 선교사에게 임대하여 설립한 내수정기독교회 설립 2주년 기념사진(1941.3.10.) [해방 후 이 예배당에서 동석기 전도자가 내수동교회 설립

동석기 선교사는 성낙소 목사로부터 한옥을 되찾은 후 감개무량(感慨無量)해서 눈시울을 붉혔으나, 성낙소는 동석기가 서울에 온 것을 환영하였다. 이때 동석기는 되찾은 한옥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修理) 등 실내 장식을 하였다. 그리고 9월 어느 주일 [당시 주일은 2일, 9일, 16일, 23일]에 역사적인 서울에서의 첫 주일 주의 만찬 예배를 인도하므로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현 내수중앙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내수동교회는 한국 Church of Christ의 역사 기록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수동교회의 ‘설립 시기’와 ‘설립자’에 대하여 “남한 최초의 교회인 내수동교회는 1936년 7월 7일(화) 성낙소 목사가 7명의 교인과 함께 시작하였다”라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 성낙소는 1938년 3월에 ‘조선야소교회(the Korean Jesus Church) 경성 내수정교회’를 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에 설립한 후 조선총독부에 신고하였다. 그리고 1938년 11월 4일 基督教會(Christian Church) 선교사인 존 채이스 [John T. Chase, 1905.9.17.~1987.12.23.] 목사에게 침례를 받으므로 신약교회로 환원하였다. 이어 1939년 3월에 ‘조선야소교회 경성내수정교회’를 ‘경성내수정기독교회’로 개칭한 후 조선총독부에 基督教會의 세 번째 교회로 변경 신고를 하였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3726호, 9~

10; 조동호, 2016: 177~179.]



내수중앙교회(전 내수동교회) 예배당

정리하면, 먼저는 基督の教會(Church of Christ)의 내수동교회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설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基督敎會(Christian Church) 성낙소 목사가 1938, 1939년에 설립한 내수정교회의 주소는 내수동 106의 1번지로 동석기 선교사가 설립한 내수동교회 주소인 106번지 옆집으로 다른 주소이다. 그리고 추후 내수동 106의 1번지는 내수동교회에서 사들여 두 곳의 대지에 예배당을 건축했었다. 그러므로 성낙소가 설립한 내수정교회는 基督の教會(Church of Christ)의 교회가 아니다. 처음에는 조선야소교회에 소속했다가 基督敎會(Christian Church)로 변

경했던 교회로 Church of Christ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이다. 그렇다면 내수동교회의 설립 시기는 언제일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보관된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소련군대가 북한을 점령하기 전’에 고향을 떠났다.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목회자이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투옥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지난 ‘1945년 9월’에 서울에 왔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내수동교회)를 하나 설립하였다. 내가 서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사실 나는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서울에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에 관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태어난 곳(출생지)과 내가 속한 지방에 먼저 진리를 알리고 싶었다. 지금 서울에는 두 곳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한 교회(공덕정교회)는 몇 년 전에 강문석(강명석) 형제에 의해 설립되었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80.]

“동석기 전도자는 1939년 9월에 내수동 106번지 건물을 3,000원에 샀으나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성낙소 목사[구세군 사관으로 사역하다 Christian Church로 환원한 자]에게 빌려주었는데 해방 때까지 사용하였다. 해방

후 건물을 회수하여 동석기 전도자가 1945년 9월 내수동교회를 시작하였다.” [박규현(1962.8.1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그리스도의 교회』 제2권, 19.]

“해방 직전 다시 동 전도자는 발길을 서울로 옮겨 현재 종로구 내수동 106번지 적산 가옥을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늘의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의 첫 출발이다.”[김세복,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 48~49.]

인용문에서 내수동교회 설립자인 동석기 전도자, KCI 박규현 교수,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 등의 주장은 모두 같은 견해로 내수동교회(현 내수중앙교회)가 ‘설립된 시기는 1945년 9월’이고, 내수동교회를 설립한 자는 ‘Christian Church의 성낙소 목사’가 아니라 ‘Church of Christ의 동석기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신학자 즉 교회사학자인 KC대학교 전 총장인 기준서 박사와 KC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였던 김익진 박사, 그리고 필자의 견해는 어떨까?

“1945년 9월 공산당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남한으로 피난하게 된다. 그는 전에 서울을 비롯한 남한지역

선교를 위하여 내수동에 집을 마련하였다. 피난 즉시 그 집에서 집회하고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명명한다.” [기준서, 「동석기 전도자」, 7.]

“1945년 9월 동석기 전도자는 공산당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남한으로 피난하게 된다. 그는 8·15해방 전에 서울을 비롯한 남한지역 선교를 위해 내수동에 집을 마련했던 곳에서 피난 즉시 그 집에서 집회하고 내수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명명한다.” [김익진(2006.),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와 신학』, 그리스도대학교 출판부, 38~39.]

인용문의 견해처럼 현재 KC대학교 초빙교수로 신학과,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필자도 ‘설립 시기는 1945년 9월 2일부터 26일 사이, 설립자는 동석기 전도자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동석기 선교사는 “저는 소련군대가 북한을 점령하기 전에 고향을 떠났다”라고 했고, “1945년 9월에 서울에 왔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 설립하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련군이 일제의 항복을 받아내고 북한을 점령하여 평양에 ‘북조선주둔 소련군 사령부’를 설치한 때가 1945년 8월 26일(주일)이기에 동석기 선교사의 북한 출발 시기를 그



이전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북청에서 서울까지 오는 기간과 예배당 실내 장식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수동교회 설립 시기를 9월 2일부터 26일 사이로 보아도 타당할 것 같다.

동석기 선교사의 남한에서의 교회설립에 관하여는 서울에 3개 교회, 부산에 1개 교회 등 모두 4개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확인한 결과 먼저, 서울지역은 4개 교회를 설립하였다. 종로구의 ‘내수동교회’(현 내수중앙교회), 서대문구의 ‘서대문교회’[1951년 8월에 정희건 전도자가 설립한 서대문교회(송월동)와는 다른 교회로 현재는 없는 교회이다], 그리고 1948년 4월 용산구 원효로 2가 2층 단독주택을 사서 강순명 전도자에게 개척하도록 했던 ‘원효로교회’[1954년 6월까지 기록은 있으나 현재는 없는 교회이다] 등이다.

다음으로 부산지역에서는 1개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교회는 1948년 부산 미국문화원에서 시작한 ‘부산교회’로 강순명 전도자와 박경동 전도자 등이 사역하였다. 그리고 부산 동서대학교 설립자인 장성만 박사가 환원한 후 출석했던 모 교회이다. 그런데, 박경동의 후임인 이승엽 전도자가 시무하던 1954년 12월 10일(금) ‘용두산공원대화재사건(龍頭山公園大火災事件)’으로 예배당이 소실(燒失)되므로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다. 그리고 부산교회 신자들은 가장 가까운 부산중앙

교회로 출석하게 되므로 부산교회는 부산중앙교회로 흡수합병되었다.

## 2. 환원 운동가 발굴

동석기 선교사는 교회설립에 심혈을 기울여 헌신한 개척전도자, 청년 복음화 대성회의 강사로 열변을 토하던 웅변가요 부흥사, 그리고 토론과 설득력이 남다르게 뛰어난 지도자였다. 이러한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척박(瘠薄)한 환원 운동의 환경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환원 운동에 함께 사역을 전개해 나갈 지도자 발굴에 혼신(渾身)의 힘을 쏟았다.

첫째는, 장로교회 목사로 이단으로 배척을 받은 독신전도단(獨身傳道團) 운동가, 걸인의 아버지, 한국교회사 속의 성인(聖人)으로 알려진 강순명(姜順明, 1898.3.24. ~1959.3.12.)이다.

강순명 목사는 평양신학교를 1939년 4월 20일(목) 졸업(제34회)하고, 1939년 12월 26일(화)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해방 후인 1945년 12월 2일(주일) 원정교회[서울 용산구 원효로, 초 교파 독립교회, 현 원동교회, 예장 합동]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을 때 군산노회로부터 목사직을 제명(除名)

당하는 수모(受侮)를 겪었다. 그뿐만 아니라 적산(敵産) 가옥이었던 교회의 부동산과 신자들까지 모두 두고 떠나라는 군산노회의 지나친 요구에도 그는 1947년 4월 그 요구대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가운데 침묵을 지키면서 예배당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과 교인들을 빼앗겨주고 떠났다.

원정교회를 빼앗겨준 강순명 목사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천막을 치고 도원동 교회(초 교파 독립교회)를 시작할 정도로 아무런 욕심이 없었던 목회자였다. 이때 강순명은 동석기 선교사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그리고 동석기에 대하여 알아보기도 하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동석기를 만날 기회를 맞았다. 사실 동석기도 강순명에 대한 여러 가지 특이한 소문을 들었기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석기 선교사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먼저 강순명을 찾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므로 두 사람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다.

동석기 선교사와 강순명 목사는 만나기만 하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성서 토론에 몰두(沒頭)하였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며 지내던 중 강순명이 자청하여 동석기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는 침례를 받겠습니다.”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동석기는 1948년 3월 14일(주) 구원의 침례를 베풀었고, 강순명은 환원하므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세 번째 초기 지도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동석기는 강순명을 적극적인 관심과 물질적으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먼저 동석기 선교사는 1948년 3월 말경 용산구 원효로에 2층 한옥을 사 주면서 강순명 전도자에게 교회를 개척하도록 권면하였다. 동석기의 배려에 고무된 강순명은 먼저 한옥 중앙에 ‘그리스도의 교회 원효로예배당’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다음으로 2층은 예배당, 1층은 목사관(방 셋)으로 실내 장식을 한 다음 가족들을 이사시켰다. 이어 1948년 4월 어느 날 동석기를 초청하여 감격의 첫 주일 주의 만찬 예배를 인도하므로 원효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강순명은 원효로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였고 가족들도 안정을 되찾아 웃음꽃이 만발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예배당 문을 닫아야 했고, 광주로 피난을 가서 형 집에 머물러 있던 어느 날(1951년 4월) 동석기 선교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강 형제! 부산 중구 용두동에 피난민들 중심으로 집회하는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으로

즉시 가서 그 교회를 맡아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강순명 전도자는 부랴부랴 서둘러 짐을 싸서 부산교회에 부임하여 판잣집 예배당에 짐을 풀고 목회를 시작하였다. 그는 부산교회에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면서 목회하였다. 먼저는 솥돌을 지고 “칼 갈아요, 칼이요, 칼”이라고 외치면서 집마다 찾아다니며 칼을 무료로 갈아주며 복음을 전했다. 다음으로는 마을 주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와 배설물들을 청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제자인 장성만 집사(부산 동서대학교 설립자)가 칼을 갈아준 이유를 물었던 당시를 훗날 회고하였다.

“도무지 스승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목사님, 왜? 칼을 갈아주십니까?’라고 조용히 물었다. 스승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무딘 내 마음을 갈고 있네’라고 대답하셨다. 이때 나는 칼을 가는 스승의 모습에서 참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다.”